

'익산시민역사기록관' 문 열어

익산의 과거·미래의 기록이 '한자리에' ... 시민 기증 기록물 9000여 점 전시·교육·체험

옛 익옥수리조합이 익산시민들과 함께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갈 기록관으로 재탄생했다.

익산시는 23일 '익산시민역사기록관(이하 기록관)' 준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준공식에는 정현을 익산시장과 도·시의원, 민간기록관리위원회 위원, 기록물 기증자, 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기록관(평동로1길 28-4)은 시민이 기증한 9,000여 점의 기록물을 전시·교육·체험 등으로 만날 수 있는 기록 문화공간이다.

익산시는 총사업비 약 11억 원을 투입해 일제 강점기인 1930년대 지어진 옛 익옥수리조합을 새롭게 단장하고 기록관을 조성했다.

기록관은 지상 2층, 연면적 484.3㎡ 규모로 기존 사무동과 참고동을 활용해 익산의 변천사, 시민 생활사 등 도시와 구성원의 정체성을 여실히 확인할 수 있는 주제들로 꾸며졌다.

1층은 △상설전시실 △보이는 기록수장고 △익옥수리조합 금고 △기증자 명예의 전당 등으로 이뤄져 있다. 기록을 통해 삶에 담긴 다양한 이야기를 발견할 수 있고, 일제에 의한 근대 농업의 슬픈 역사와 기록관 조성 과정을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다.

2층은 교육 기록물을 주제로 하는 기획전시실과 교육·체험 공간, 기록 작업실로 구성돼 있다. 교육 관련 기



록은 기증 자료 중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전시를 통해 교육도시 익산의 면모를 확인할 수 있다.

3층인 지붕층은 목조 트러스 기법이 적용된 맨사드형 지붕의 원형이 보존돼 있어 1930년대 건축물의 흔적을 엿볼 수 있다. 지붕층은 운동주의 생애를 그린 영화 '동주'의 촬영지로 활용되기도 했다.

참고동에는 내부에 설치된 사진 기록으로 찍은 사진이 큰 화면으로 전송돼 몰입감 있는 체험을 즐길 수 있는 기록실감상고와 기록우체국 등이 조성돼 있다.

기록관은 화·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된다. 자세한 내용은 행정지원과 (063-859-5723, 4620~4622)로 문의하거나 누리집

(archives.iksan.go.kr)에서 확인하면 된다.

시는 기록물 기증부터 명칭 확정까지 시민의 참여로 만들어진 기록관인 만큼 앞으로도 시민이 주도해 만드는 열린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익산근대역사관 △익산항일독립운동기념관 △습리문화공고 △인화동 근대역사문화공간과 연계하는 익산 근현대사 관광의 거점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전망한다.

정현을 시장은 "익산시민역사기록관 준공은 개인의 기록이 익산을 상징하는 기록유산으로 재탄생하는 발판을 마련한 의미 있는 순간"이라며 "기록물 기증부터 기록관 건립에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신 모든 익산시민께 감사하다"고 말했다. /익산=이재훈 기자

익산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속도 낸다'

전북 익산형 일자리 상생협의회 개최... 성과 공유·내년 계획 논의

익산시가 지역 발전을 견인할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힘쓴다.

익산시는 23일 상생협의회·실무위원회 위원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청 대회의실에서 '전북 익산형 일자리 상생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사업 추진 성과를 공유하고 2025년 사업 추진계획 승인 의결, 협력 기업 추가 논의 등을 위해 마련됐다.

하림푸드는 내년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최첨단 식품 플랜트 착공으로 익산시에 본격적인 투자를 시작할 계획이다. 하림푸드 착공으로 지역 내 활기를 불어넣고, 협력기업은 관내 식품기업 10개사 추가로 총 29개사가 돼 지역산업 발전을 견인한다.

'전북 익산형 일자리'는 지난해 5월 산업통상자원부의 '지방주도형 투자일자리'로 선정된 이후 하림산업 주도

로 대규모 지역 투자와 일자리 창출 등 꾸준한 성장을 하고 있다.

실제 전북 익산형 일자리 사업은 현재까지 누적 1,142억원의 투자와 336명의 직접 일자리 창출 성과를 이뤄냈다. 특히 하림산업은 지난 1월 온라인 물류센터를 신축하고 즉석밥 라인 설비를 증설하는 등 지역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시는 내년도도 참여기업인 하림산업·하림푸드의 총 848억원 투자와 87명의 신규고용을 목표로 '전북 익산형 일자리'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한편, '전북 익산형 일자리 상생협의회'는 익산형 일자리 사업의 지원과 촉진을 위한 심의·조정·협의·의결을 위한 의사결정 기구다. 지역 노·농·사·민·정을 대표하는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익산=이재훈 기자

지역 소식 통



서군산체육센터 수영장 26일부터 무료 시범운영

조만간 개관을 앞둔 서군산체육센터(이하 센터)가 오는 26일부터 수영장을 시작으로 무료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서군산체육센터는 군산시 산복동(군산시 입사길 14)에 위치했으며 2025년 2월 정식 개관을 앞두고 있다.

군산시는 1개월 동안 시범운영을 한 뒤 운영 시스템 점검 및 이용 불편사항을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1~3단계에 걸쳐 점차 운영을 확대 예정이다.

서군산체육센터는 2019년 건립을 시작하여 올 11월 공사가 마무리됐다. 총예산 280억 원으로 지상 3층, 지하 1층의 연면적 8,452㎡의 규모로 건립되었다.

세부 시설로는 수영장(25m×8레인, 어린이 풀 1개)과 다목적체육관, 체력단련실, GX 룸 등을 갖췄다. 정식 개관 후에는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수영 강습, GX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될 계획이다.

센터의 모든 소식은 카카오톡 채널에 '서군산체육센터'를 친구 추가 하면 빠르게 받아볼 수 있다. /군산=이재훈 기자

군산시, 아동친화도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군산시는 23일 군산시청 상황실에서 신원식 군산 부시장 주재로 '아동친화도시 조성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에서 참석자들은 그동안의 연구 성과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아동의 요구를 기반으로 한 아동친화도시 조성 전략의 세부 추진 방향과 전략 사업을 논의했다.

군산시는 이번 회의에서 '아동이 행복한 군산'이란 가치를 세우는 한편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아동을 보호하는 안전 도시, △늘 권리가 보장되는 행복 도시, △아동의 참여로 함께하는 소통도시, △아동의 성장을 지원하는 기회 도시란 4대 조성목표를 토대로 46개의 전략사업이 함께 제시됐다. /군산=이재훈 기자

군산시, 지방세 징수실적 '대상' 수상

전북자치도 기관 표창·특별조정교부금 3300만원 받아

군산시는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실시한 2024년 하반기 지방세 징수실적 우수시군 선발 결과, A그룹 대상(1위)으로 선정되었다. 이번에 1위로 선정된 군산시는 도지사 기관 표창과 특별조정교부금 3,300만원도 받게 됐다.

지방세 징수실적 우수 시군은 도내 14개 시·군의 세수 규모에 따라 A그룹, B그룹, C그룹으로 나뉘어져 심사를 받는다. 도세 및 시군세 징수율, 이월체납액 징수 목표 달성도 등 8개 분야를 종합적으로 평가된다.

군산시는 한 해 동안 자주재원 확보 및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연간 징수

계획을 수립해 사업을 진행했다. △반기별 체납 지방세 일제 정리 기간 운영 △미사용 수료 이득상환 청구권 압류 △관세기관 합동 영치 등 체납징수 시책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체납 지방세 징수에 총력을 기울였다.

이런 노력으로 군산시는 115억 원의 이월체납액을 정리하여 목표액을 100% 초과 달성하는 쾌거를 이뤄냈다. 시 관계자는 "성실납세자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빈틈없는 징수 활동을 통해 건전한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군산=이재훈 기자

"크리스마스엔 익산으로" 즐길 거리 한가득

보석박물관·백제왕궁박물관, 다양한 교육·체험·공연 마련

익산역 앞 근대역사관의 크리스마스 12m 초대형 트리 운영 등

익산시가 오는 25일 크리스마스를 맞아 곳곳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놀거리를 준비했다.

우선 크리스마스 당일 익산에 위치한 국내 유일의 '보석박물관'이 새롭게 꾸민 상설전시관을 공개한다.

보석박물관은 익산문화도시지원센터와 힘을 모아 보석박물관 상설전시실의 입구를 현대적 디자인으로 개편했다. 대한민국의 보석과 백제의 보물을 소개하고 익산 귀금속 보석산업의 역사까지 살펴볼 수 있는 공간이 됐다.

또 12개월 탄생석에서는 각자 태어난 달에 따라 달라지는 탄생석을 알아볼 수 있어 세대를 아우르는 즐길거리로 각광받을 전망이다. 상설전시실 안에는 휴게공간도 마련돼 보다 편안한 분위기에서 관람을 즐길 수 있다.

이와 함께 박물관 관람객을 대상으로 2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크리스마스 체험 행사를 운영한다. 피라미드동 2층에서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이중 '크리스마스 비즈 팔찌'와 '보석박물관 스크래치 엽서'를 만드는 체험은 무료로 할 수 있다. 특별 프로그램인 보석 미니 트리를 비롯해 △천연 보석 팔찌 △천연보석 소망나무 △공통화석 지우개 등 4개 만들기 체험은 유료로 진행된다.

아외에서는 화려한 야간경관이 눈길을 사로잡는다. 보석박물관에 설치된 대형 크리스마스 트리와 함께 찍은 사진을 SNS에 올리면 선물을 주는 추억 만들기 이벤트도 있다. 보석박물관의 모든 체험과 이벤트는 현장에서 접수

하면 된다.

보석박물관 인근 '백제왕궁박물관'에서의 크리스마스도 놓칠 수 없는 즐거움을 선사한다. 어린이 관람객이 실내에서 따뜻하게 즐길 수 있는 교육·체험·공연이 담긴 종합 선물세트다.

교육 프로그램인 '안녕? 내 이름은 어린석(魚鱗石)'은 왕궁리유적에서 출토된 어린석에 대해 배우고, 이를 블록으로 만들어보는 활동이다. 당일 현장 신청자 200명 대상으로 운영된다.

'크리스마스 장식 만들기'는 사전 신청 관람객을 대상으로 이날 2회 진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크리스마스 캐롤과 함께하는 마술·버블 공연이 오후 2시 30분부터 펼쳐진다. 산타와 의 추억 남기기, 추첨을 통한 선물 증정 등 다양한 행사가 준비돼 있다.

한편 시는 익산역 앞 익산근대역사관에서 지난 2일부터 운영한 12m 초대형 트리 경관을 25일까지 운영하고 있다. /익산=이재훈 기자

익산시, 수해 소상공인에 20억원 지원

전북 재해구호기금 활용...상가 당 200만원 씩 1027곳 지급

익산시가 지난 여름 집중호우 피해로 생계에 타격을 입은 지역 소상공인을 위해 지원금을 지급한다.

시는 전북특별자치도 재해구호기금을 통해 상가당 200만 원씩, 모두 1,027상가에 20억 5,400만 원을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7월 익산을 덮친 갑작스러운 집중호우로 지역 골목상권은 큰 어려움을 겪어왔다. 침수된 상가와 소상공인인 생계를 위협했고, 이는 자연스레 지역 경제 상황 악화로 이어졌다.

이에 시는 피해 소상공인에게 조금

이나마 희망을 전하고자 전북 재해구호기금을 통한 지원금 지급에 나섰다. 지원 대상은 지난 7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사례 중 피해사실이 확정된 소상공인이다.

한편 시는 지난 여름 집중호우 당시 주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켜내기 위해 응급포면과 합라면, 여산면, 망성면 등에 10개 임시주거시설을 운영했다.

대피 권고를 받고 급하게 거처를 떠난 주민 120여 명을 대상으로 생필품이 포함된 응급구호세트, 급·간식을 지원하는 등 안전한 보호에 힘썼다.

/익산=이재훈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전주매일 캠페인

고스란히 남아있는 백제 장인의 숨결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은 익산 왕궁리 유적에 있는 오층석탑이다. 1965년부터 1966년에 보수를 위한 해체와 복원을 실시하였고 이후 흙 속에 묻혀 있던 돌로 만든 기단부가 발견되었다. 1층 옥개석 상면과 기단부 심초석 상면에 마련된 사리공에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사리장엄구 '국보 제123호'를 수습하였다. 창건에 대한 문헌 기록이 없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추정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의 건립 연대는 백제 시대에서 통일신라, 고려 시대 초까지 논란이 다양하다. 1939년부터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을 중심으로 본격적 발굴 조사를 실시한 결과, 백제 시대에 경영되었던 궁성이 폐기되자 궁성 터에 탑·금당·강당을 남북 일직선으로 배치한 백제의 전형적인 1탑 1금당식 사찰을 지은 것으로 밝혀졌다. 본래 목탑이었던 것이 현재의 석탑으로 바뀌었고 백제 멸망 이후에도 범등을 계속 이어 갔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은 1963년 1월 21일 보물 제44호로 지정되었고, 1997년 1월 1일 국보 제289호로 승격 지정되었다가 2021년 11월 19일 문화재청 고시에 의해 문화재 지정번호가 폐지되어 국보로 재지정되었다.

**출처: 한국학중앙연구원-향토문화전자대전

